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22년 10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2022년 12월 12일

“나의 과달루페 축일은 이곳 거룩한 사랑의 성지에서의 또다른 기도 행사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널리 알리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 2022년 10월 26일)

12월 11일 (일) 기도 모임*

오후 3시 - 자비심의 기도 (하나되신 성심의 기도회관)

저녁 7시 - 기도 모임 (하나되신 성심의 기도회관)

12월 12일 (월) 기도 모임 -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

오후 2:30 - 행렬과 기도 모임, 우리의 모후께서 약속하신 발현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

(12일 저녁 7시 기도 모임은 없으며 온라인 생중계 또한 없습니다.)

(* 모든 기도 모임은 holyllove.org 웹사이트에서 생중계 됩니다.)

■ 2022년 10월 1일 -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거룩한 사랑의 선교사업의 수호 성인 중 한 명).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구원이 나의 책임이라고 잘못 믿지 마라. 나는 내 아들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너희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자유의지로, 성덕의 삶과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너희의 구원을 선택해야만 한다.”

“오늘의 성인인 소화 데레사는 하루 종일 수많은 작은 희생들을 봉헌하며 자신의 영적 여정을 향상시키는 쪽을 선택하였다. 이 희생들은 그녀에게 천국의 더 높은 자리를 확보해 주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사랑으로 봉헌되는 희생은 무가치한 것이 없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2:8-10)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 하느님 아버지의 십계명 해설은 한국어 웹사이트의 ‘주제별 메시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lovekorean.com/xe/subject>

■ 2022년 10월 2일 - 수호천사 기념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최근 경험한* 것과 같은 폭풍이 있는 것처럼 너희 삶에도 풍파의 시간들이 있다. 이런 삶의 풍파는 질환이나 다른 이들과의 갈등, 또는 무엇이 의로운 결정인지에 대한 혼란스러움 등이 될 수도 있다. 너희가 자연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사건에 직면할 때 너희는 창문을 판자로 막거나 피신처를 찾거나 또는 다른 이들에게 대비하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 너희 삶의 풍파는 악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강한 유혹이나 다른 이들과의 갈등, 또는 질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기야말로 너희가 기도를 더 하고 특별한 희생들을 바치거나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구함으로써 너희 영혼의 창문을 ‘판자로 막아야’ 할 때다. 세상에서 허리케인을 잘 견어내기 위해 애쓰는 영혼들은 비록 마지막 수단일지라도 마침내 나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있다. 일상 생활의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때가 많다. 그러므로, 각 영혼은 반드시 영적, 육체적, 감정적으로 모든 일에 대비해야 한다. 너희는 허리케인의 경우처럼, 너희 삶의 많은 사건들을 예측하는 기상 캐스터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유다 17-2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에 자기의 불경한 욕망에 따라 사는 조롱꾼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로서, 현세적 인간이며 성령을 지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닿아 더러워진 속옷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 허리케인 이연

■ 2022년 10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현 순간의 은총에 대한 희망, 나의 신성한 뜻의 최종 결정에 대한 희망 등 언제나 너희 마음속에 희망을 품어라. 너희 마음의 평화가 세상의 물품들이 아니라 나의 신성한 안배에 의지하게 하여라. 나는 늘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염두에 두고 있으니 나의 중재에 의지하여라.”

“그러니 현 순간의 은총으로 평화를 누려라. 모든 낙담을 나의 신성한 뜻에 내맡겨라. 희망에 반대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항상, 매일 아침 너희 마음을 나의 아들의 성혈로 덮고 ‘마귀들의 공포’인 성 요셉에게 너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5:1-5)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 2022년 10월 4일 -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각자에게는 희생 영혼이 되어야 하는 대의가 있다. ‘신성한 희생적 삶 (Divine Victimhood)’이란 너희가 크고 작은 모든 곤란과 어려움들을 나의 부정적 성심에 봉헌한다는 뜻이다. 이 십자가들을 나에게 의탁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 십자가들을 용감하게 받아들인

다는 뜻이다. 십자가들을 받아들이는 너희의 행위는 너희를 나의 희생 영혼의 군대에 속하게 한다. 나의 군대가 크면 클수록 세상에서 악에 맞서는 나의 방어가 더 강력해진다. 바로 나의 군대가 나로 하여금 악을 초반에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악을 드러내기 위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너희는 나를 거슬러 일하는 것이다.”

“나의 희생 영혼들의 군대는 빛의 영혼들의 군대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6-13)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 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 2022년 10월 5일 - 성녀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기념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루 종일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게 하여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수 있게 하여라. 이렇게 하면, 나의 뜻이 너희의 모든 행동의 일부가 되고 우리는 함께 모든 선을 성취하게 된다. 너희가 이 노력을 실천하면, 머지않아 이것이 항상 너희의 매 현 순간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너희는 묵주기도가* 너희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사악한 계획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갈등 속에 있을 때,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알기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현 순간이 너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너희의 행위 안에 나의 뜻에 대한 너희의 내맡김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묵주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함으로써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데 있습니다:

-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 개정판 (한국어):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814>

- 영어 묵주기도 묵상집: <https://www.holylove.org/rosary-meditations>

- 태아 묵주기도와 짧은 묵주기도 한영 소책자: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244>

- 태아 묵주기도의 약속과 은총: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6457>

- 태아 묵주 온라인 주문: www.rosaryoftheunborn.com

■ 2022년 10월 6일. 이 날은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2022년 10월 7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오후 3시 기도 모임.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묵주기도는 세상의 평화를 장려하며, 아버지의 정의(심판)의 팔을 저지한다. 바로 너희의 묵주기도가 인간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음모 곧, 한층 더한 악성 세균전의 방출을 막고 있다.”

“최근 이 나라는 [1] 몹시 사나운 허리케인으로 폐허가 되었다. 수많은 목숨과 영혼들이 상실되었다. 만약 너희가 이 폭풍우가 다가올 때 묵주를 들고 기도했다면, 허리케인은 약화될 수도 있었고, 심지어 경로가 변경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 괴물같은 폭풍우에 비해 그 기도 노력이 부족하였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는 모든 것이 잘 작동하도록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력과 같다. 전기가 나가면 너희는 많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다. 기도는 사람들의 마음과 너희 주변 세상에 천국의 도움을 얻어주는 힘이다. 너희의 묵주기도는 세상의 미래를 바꾸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악을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너희가 이런 사실들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자는 너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매우 애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너희의 마음을 내 티 없는 성심에 일치시켜라. 그러면 너희가 하루 종일 톡톡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영향을 줄 것임을 신뢰하여라. 두려움보다는 바로 너희의 믿음이 하느님의 권능을 부르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과 하느님의 성심 사이에 있는 기도의 길이 통행이 잦은 길이 되게 하여라. 기도하는 데 있어 어떤 재해가 너희에게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너희의 묵주기도를 하느님의 주의 깊은 귀와 그분의 권능에 너희를 연결시켜주는 끈이라고 생각하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의 열렬한 묵주기도가 정말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지를 너희가 마음속 깊이 깨닫도록 기도한다. 만약 각 영혼이 하루에 한 번 성모송을 [2] 바친다면 나는 사탄이 전쟁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영혼들을 되찾아

올 수 있다. 그러나 (5 단) 묵주기도의 힘이 과연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세균전을 멈출 수 있기를 바라느냐? 묵주기도를 바쳐라. 세상에서 쾌락과 경제적 이득을 좇는 데 몰두하고 있는 영혼들을 회심시키기를 바라느냐? 묵주기도를 바쳐라. 내가 이 성지에 오는 것을 의심하는 이들을 설득하기를 바라느냐? 묵주기도를 바쳐라. 너희의 묵주기도를 바쳐라.”

“만약 너희가 나의 묵주기도의 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물론 더 많은 것도 이룰 수 있다.”

“나는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3]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의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바로 그 이유에서, 너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 모세가 온 것이다.”

이제 모세께서 십계명이 새겨진 두 판을 들고 이곳에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 율법에 대한 너희의 순종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의 순종이 없다면 너희는 결코 천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정보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 드려라. 너희의 순종에 대해 하느님께 찬미 드려라.”

모세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세 가지 축복’을 내리십니다. [4]

[1] 미국

[2]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3] '거룩한 사랑의 축복'은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021년 10월 7일 우리의 모후께서 주신 메시지를 읽거나 들어도 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holylovekorean.com/x/message/89836>

[4]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 (빛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된' 축복)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의 '하나 되신 성심의 메시지'의 공지 사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10월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다. 거룩한 사랑은* 너희의 하느님인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계명들의 구현이라는 사실을 부디 깨달아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거짓 신으로 만들지 마라. 너희의 생존 조차도 말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면 너희에게 항상 최고로 좋은 것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라.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1-22)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 '거룩한 사랑이란' 전단지:

<http://holylovekorean.com/x/data/79238>

■ 2022년 10월 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계절의 변화를 겪고 있다. 나뭇잎들의 색깔이 이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삶에서 너희는 사람들의 행동의 동기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이것이 시야에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다. 그렇기에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가식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의 진실을 알아보고 그들을 대하도록 너희를 깨우쳐 달라고 성령에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의 어떤 부분들을 감추곤 한다. 이것이 너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다. 자연에는 가식이 없다. 계절은 아무런 이기적인 동기 없이 바뀐다. 계절은 시간에 대한 나의 칙령을 따른다. 그러나 인간은 그들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그들만의 (다른) 계획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엄격하게 진리만을 취급하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베드 1:22)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1-16)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나 간교한 계략에서 나온 가르침의 온갖 풍랑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

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 **2022년 10월 1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난 주말은* 영적으로 성공적인 시간이었다. 과거에는 한 번도 제재 받지 않았던 어떤 특정한 영들이 이번에는 정면으로 맞닥뜨려졌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의를 주지만, 이 선교사업에 대한 사탄의 공격은 갈수록 그 힘이 세지고 횡수도 많아질 것이다. 발현 때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대비하여라. 또한, 이것은 너희가 사탄의 사악한 계획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신호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의 최후의 전투의 시대다. 이 선교회가 그자의 길을 막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힘은 나와 나의 아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결국에는 사탄은 모든 힘을 빼앗기고 영원히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탄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래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위로부터 오는 용기 안에 너희 자신을 감싸라. 위협적인 상황이 생기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나는 결코 악에 맞서 싸우고 있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8)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과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 2022년 10월 7일 발현 주말

■ **2022년 10월 1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나의 많은 자녀들은 현대 통신 수단에 매우 능숙하기에 서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다. 이 메시지들의 목적은 시간과 거리가 우리를 떨어뜨려 놓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자녀들인 너희에게 가까이 머무르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기 위한 길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에 나는 인류가 위험을 넘어 나아가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사건들과 그 외 여러가지 등 수많은 방법을 통해 영혼들에게 말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나의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 천국과 지상 사이의 이 의사 소통의 부족이 사탄으로 하여금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도록 길을 열어준다.”

“자녀들아, 매일 시간을 내어 나에게 말하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내가 너희에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4:7-8)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 **2022년 10월 1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삶이 너희에게 어떤 상황을 보낸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라. 너희의 하루에 일어나는 일 중에 내가 모르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나의 안배가 언제나 너희 위에 머문다. 나는 너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안다. 어떤 상황이든, 너희의 피난처는 바로 기도다.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는 내가 상황을 주관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신뢰하여라. 너희의 신뢰는 위로이며, 결코 보상 받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는다. 신뢰하는 영혼은 평화를 누린다.”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을 너희에게 가리켜 보여주면서 사탄이 너희를 뒤흔들게 놔두지 마라. 그것은 두려움의 시작이다. 두려움은 신뢰의 적이다. 두려움은 너희의 평화로운 내맡김의 적으로부터 나온다.”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8: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6-7)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2022년 10월 13일 - 포르투갈 파티마의 태양의 기적 105주년 기념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수십 년 전에 아버지께서는* 나라 간의 평화와 인류와 하느님 사이의 평화를 위해 세상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장려하기 위해 내가 파티마의 어린 세 목동에게 발현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오늘 나는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왔다. 묵주기도는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화해, 그리고 인간과 모든 민족 간의 화해의 화음이다. 인간이 이 평화의 공식을 깨닫는 것을 반대하는 자는 바로 사탄이다.”

“사랑하는 작은 아이들아, 절대 너희의 기도 노력의 중요성, 특히 묵주기도를 바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변화가 평화적 합의를 가져올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초래할지는 너희에게 달렸다. 나는 언제나 너희의 천상의 어머니로서 너희와 함께 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면 나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나는 너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너희와 함께 기도한다.”

“인간이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살상 무기의 위협으로 나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4:1-3)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4-7)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아바 하느님

**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의 코바 다 이리아에서 루시아 산토스와 그녀의 사촌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 마르토 등 세 목동들에게 나타나셨던 복되신 어머니의 발현.

■ 2022년 10월 1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묵주기도는 똑같은 기도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똑같은 기도라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바쳐질 때 각기 다르다. 이 기도들의 차이는 기도가 바쳐지는 순간의 마음의 참여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는 다른 기도보다 좀 더 열렬하며, 그래서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너희가 기도할 때 은총이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너희의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떠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수많은 필요들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안다. 종종 너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때가 많다.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의 차이를 안다.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결정은 나에게 맡겨 두어라. 너희의 기도의 결과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6-7)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2022년 10월 15일 -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발전하는 것을 오늘 너희의 목표로 삼아라. 결코 너희의 현재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마라. 너희가 이 거룩한 심방들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면 너희 주변 세상 또한 바뀐다. 너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지고, 너희 삶의 모든 관계들이 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기 위해 너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너희 각자의 몫이다.”

“너희가 우리의 하나된 성심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면, 너희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요한 3:18-20)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의 ‘하나된 성심의 계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ovekorean.com/xs/uh>).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계시’는 ‘추천 도서 및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ovekorean.com/xs/data/76237>)

■ 2022년 10월 1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깊은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이타심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너희에게 상기시켜 준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 복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영혼은 그

마음이 나에게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영혼은 그의 기도조차도 개인적인 필요와 목표만으로 가득 차 있다. 거룩함에서 진보하려면 지나치게 너희 자신이 필요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려해 보면서 너희 마음이 다른 이들의 필요에 집중하게 하여라.”

“이것이 나의 아들이 수난을 겪을 때 기도했던 방법이다. 예수는 영혼들의 마음의 회심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구원을 얻어주기 위해) 고통을 겪었던 그 모든 이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일상 생활은 물론 너희의 기도 생활에서도 항상 너희 자신의 필요에 앞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먼저 고려하여라. 모든 것이 어떻게 너희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하는 것을 피하여라. 이것은 모든 영혼이 씨름하고 있는 이기심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23:34)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 **2022년 10월 1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매 현 순간은 너희의 선택에 따라 너희가 더욱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덜 거룩해지는 기회다. 모든 상황에서 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지거라. 이것은 모든 덕에 있어 깊은 성덕을 요구한다. 너희는 나의 뜻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허락하는 모든 것들이 너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 또한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는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너희는 나를 신뢰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9:10-11)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환난 때에 피신처가 되어 주시네. 당신 이름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니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아니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11:6-7)

그분께서 악인들 위에 불과 유향의 비를 그물처럼 내리시어 타는 듯한 바람이 그들 잔의 몹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의로우시어 의로운 일들을 사랑하시니 올곧은 이는 그분의 얼굴을 뵈게 되리라.

■ **2022년 10월 1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단기 계획과 장기 계획 사이에 차이가 없다. 모든 것이 나의 신성한 뜻의 보호 아래 놓여야 한다. 어떤 계획이든 너희가 나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너희 (혼자)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그 계획에는 인간의 실수가 동반될 것이다. 또한 너희의

결정은 성령의 영감 없이 불완전하고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너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것에 대하여) 기도하면, 그 결정들은 너희 자신의 것을 초월한 신성한 통찰력과 지식을 반영한다. 너희는 쉽게 실망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를 통해 언제나 내가 너희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함께 일상의 결정들을 내릴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8)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 **2022년 10월 1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열렬하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의 모든 청원들을 나에게 완전히 의탁해야만 한다. 그런 다음,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나의 용서를 구하여라. 나의 성심이 너희의 죄들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오직 그때에만 비로소 나의 성심이 너희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활짝 열리게 된다. 그때에 나는 비로소 나의 부성적 성심의 자원을 활짝 개방해 내가 너희가 가지기를 바라는 모든 유익한 것이 (너희에게) 흘러가게 할 수 있다.”

“나의 성심의 어떤 감정도 의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내 앞에서 있어라. 나는 오직 나의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란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라.”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4-7)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2022년 10월 2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하루 동안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너희 곁에 가까이 있는 은총에 의지하여라. 절대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어 줄 나의 천상적 손길에 대해 절망하지 마라. 이런 문제들은 보통 너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은총을 얻으라고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들은 다른 영혼들을 구하는 길이다.”

“은총은 신뢰하기 어렵다. 보이지도 않고, 일정을 정할 수도 없다.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곧 신뢰라는 주제로 돌아간다. 만약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는 나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

다. 나에게 대한 너희의 신뢰는 나에게 대한 너희의 사랑에 비례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거라. 그리고 심호흡을 하여라. 그런 다음, 너희의 어려움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기다려 보아라. 너희가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더 믿을수록, (나를) 신뢰하기가 더 쉬워진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2-13)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 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 2022년 10월 21일. 이 날은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2022년 10월 22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가 나와 너희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이 되게 하여라. 너희의 모든 의심과 불안과 혼란을 나에게 내맡김으로써 그렇게 하여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있지 못하게 하여라. 장애물은 보통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놓는 분심거리인 경우가 많다. 이 모든 것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나는 너희의 노력을 인정하고 너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 너희를 돕게 하겠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의 신성한 뜻에 따라 너희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도 너희의 영이 걱정과 의심으로 어수선했 때가 많다.”

“이런 걱정과 의심 들은 너희의 영이 언제든 너희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전능한 힘에 대한 신뢰가 약할 때 생긴다. 너희가 가장 많이 신뢰할 때, 너희의 기도가 가장 강력해진다. 신뢰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의심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1 베드 5:10-11)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 주신 그분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아멘.

■ 2022년 10월 23일. 이 날은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2022년 10월 24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힐 때, 나에게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법을 배워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너희가 배워서 습득해야 하는 자세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칠 것이다. 어떤 분심이나 문제 들이 이것을 방해하는지 깨닫고, 그것들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마음과 영을 차

지할 수 있다. 오직 그때에만 비로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가장 순수한 거룩함의 길로 너희를 데려갈 수 있다.”

“너희가 계속해서 마음의 일부를 세속적인 관심사에 둔다면, 이것은 너희가 아직 나의 신성한 뜻에 완전히 내맡기지 않는 뜻이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와 너희를 공격한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법과 기도할 때 분심을 피하는 방법 등 기도에 관한 나의 가르침들을 엮은 소책자를 만들기를 요청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메시지가 아직 다 주어진 것은 아니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4:4-7)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 2022년 10월 25일. 저는 (모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 생활은 너희 영성의 열매다. 너희가 나와 관계를 소홀히 하면, 이 약함은 나와 떨어진 관계로 나타난다. 이런 관계는 너희를 더 깊은 개인적 거룩함의 길로 인도하는 데 거의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 나와 너희의 이런 약한 관계는 나의 안배에 대한 (너희의) 신뢰 부족으로 나타난다. 약한 영혼은 나의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가 기도할 때, 집중을 방해할 수 있는 기회들을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너희 주변의 분위기를 일신하여라. 오직 그때에만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와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통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너희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면, 너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나의 지침에 대한 강한 느낌이 들 것이다. 따라서 사탄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너희(가 받은) 자극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탄은 여전히 너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나의 영을 흉내내기 위해 노력한다. 기도를 시작할 때 참된 분별력의 은총을 청하여라. 너희가 (기도중에) 받는 어떤 지침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끼지 마라. 그저 겸손하게 나의 지침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훌륭한 도구의 표시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8)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

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 2022년 10월 2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 눈에 용납되지 않는 기도란 없다. 기도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기도에 관한 나의 메시지들의 목적은 영혼들을 나와 좀 더 강력한 소통 관계 안으로 이끄는 데 있다. 너희가 청원 기도를 바치든 감사 기도를 바치든 너희와 나, 우리 마음 사이의 길은 어수선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 마음을 가라앉힐 때, 너희 마음에서 모든 세속적인 욕망이나 걱정을 없애라. 이기심은 나와서 보다 깊은 영적 교감의 길에서 방해 요인이다. 나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나의 신성한 뜻으로 가득 채우도록 허락하는 영혼은 우리의 하나님 성심의 심방들을 빠르게 통과해 나아간다.”

“나에게 사랑받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갈망인 작은 어린아이들처럼 되어라. 너희는 훗날 이에 따라 심판 받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루카 18:15-17)

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 2022년 10월 26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의 과달루페* 축일은 이곳 거룩한 사랑의 성지에서의 또다른 기도 행사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을 널리 알려라.”

*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 2022년 10월 2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들은 세상, 그리고 나와서 관계 사이에서 좀 더 완전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나의 도움을 구해야만 한다. 세상의

쾌락들과 건전치 못한 관계를 맺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오랜 시간 지켜왔던 너희의 일정(스케줄)을 항상 신뢰하지는 마라. 사탄은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할 수 있다.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가 사탄의 사악한 계획에 맞서는 너희의 최상의 방어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너희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쉽게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기도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6-13)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 2022년 10월 2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삶의 모든 면에서 진리를 지킬 수 있게 너희를 도와 달라고 너희 천사에게 청하여라. 진리가 타협되면 너희의 평화도 타협된다. 나의 계명들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 나의 계명들은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맞추기 위해 바뀌지 않는다. 사탄에게 속아 그렇다고 잘못 생각하지 마라. 나의 계명들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나의 계명들에 순종함으로써 진리에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사람들의 삶에서 모든 거짓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이 나의 계명들의 진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때에 참된 평화가 모든 이의 마음과 모든 민족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탈출 23:20-21)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19-24)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분의 아드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22년 10월 2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영혼들의 배교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이런 영혼들은 매일 수백명에 달하며, 나의 부성적 성심의 중심부를 강타하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이 메신저를 통해 ‘신앙의 보호자인 마리아에게 바치는 5일 기도’ 내용을 구술해 주고자 한다. 이 칭호는 지난날 지역 교구 당국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칭호다.* 나는 이 유감스러운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십수 년간 신앙이 점점 더 타협되는 것을 지켜 보았다. 나는 더이상 이 비극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제쳐두고 있을 수 없다. 나는 매일 바치는 기도와 함께 (5일 기도에 대한 구술을) 시작하겠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여,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당신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 클리블랜드 교구의 주교는 ‘신앙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승인해 달라는 우리 모후의 청에 대해 한 명의 신학자와 검토한 후, 성모님과 성인들에 대한 신심이 이미 너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는 1987년 클리블랜드 주교에게 이 칭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셨습니다.

** 복되신 어머니께서 주신 비슷한 메시지: 2013년 11월 8일 메시지 참조

■ 2022년 10월 3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요즘 시대에 너희의 신앙은 선물이라는 점이 옹호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신앙은 높이 평가되고 있지도, 너희의 영원에 중요한 것으로 소중하게 생각되고 있지도 않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신앙의 보호자인 마리아에게 바치는 5일 기도’의 첫째 날 기도문을 준다.”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에게 바치는 5일 기도

제 1 일

“이 혼란의 시대는 신앙에 대한 전례 없는 무시를 보여줍니다. 사랑하올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신앙의 보호자시여, 당신께 청하오니 저와 모든 이의 마음속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여론이나 소셜 미디어, 여가와 엔터테인먼트 등을 통해 사탄이 저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이 위협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소서. 아멘.”

매일 바치는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여,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당신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 2022년 10월 3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에게 바치는 5일 기도

제 2 일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여, 현대 사회의 배교에 직면하여 신앙을 옹호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약한 믿음과 믿음의 부족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 있는 세상에서 저를 당신의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신앙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매일 바치는 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여,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당신 성심 안에서 저의 신앙을 약탈자로부터 보호해 주소서. 저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도우소서. 아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정기 기도 모임

매일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저녁 7시

기도 모임에서 천상이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베풀 때마다 기도 모임 참가자는 이 세 가지 축복의 혜택을 모두 다 받게 됩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GIFT SHOP)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 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 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 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 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 번과 Lorain Road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 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 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 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 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 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 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 가 나옵니다. Lorain Road 에서 서쪽 방향으로 4 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 명이 Butternut Ridge Road 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이자 신비주의자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10: 4-1/8" x 9-1/2")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TWO-OUNCE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터 (Aquinas Welcome Center) 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 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목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로드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 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체험담 제출: HolyLoveKorean@gmail.com

웹사이트: www.holly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태아 목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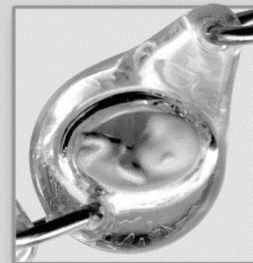
오늘은 이 아기가 살아갈 인생의 첫 번째 날입니다.



모든 어머니들과 아기들이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도록 낙태 종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www.RosaryOfTheUnborn.com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440-327-4532
customerservice@rosaryoftheunborn.com



Magnified view of bead

